

당쟁의 소용돌이에 희생된 불운한 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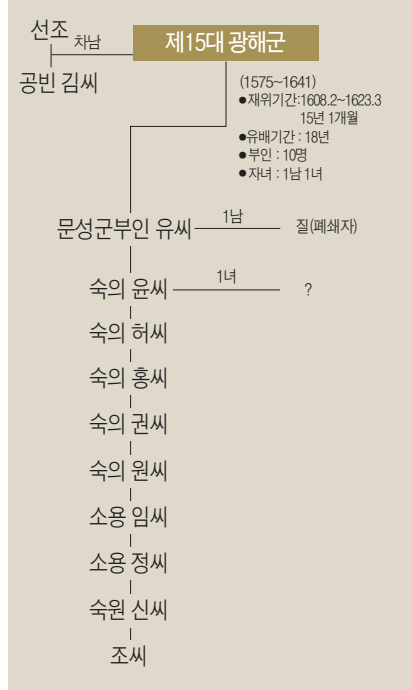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입다 ③

15대 광해군-문성군 부인 - 광해군묘

광해군 1575~1641(67세)
재위 1608.2(34세)~1623.3(49세) 15년 1개월,
18년(49~67세)

제15대 광해군 가계도



광해군 묘 비석. 흉탄 자국이 선명하다.

광해군 묘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불행한 봉당의 희생자는 경사가 심한 비탈에 조촐하게 누워있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색하다. 그가 잠든 일대는 지금도 교회의 공원묘지다. 공원묘지 통행로를 한참 올라가다보면 도로 옆 비탈에 그가 누워있다. 능이란 이름을 얻지 못했기에 주변에 공원묘지가 조성되었다.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다. 후궁 공빈 김씨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다. 출생부터 파란을 예고했다. 조선 조는 지체가 아닌 논리와 명분을 최대가치로 삼았다. 어느 쪽이든 논리는 항상 견고하다. 논리 이전의 논리, 불합리자가 끼어들 틈이 없는 시대였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속성은 제로섬 게임이다. 전부(全鄣) 아니면 전무(全無)다. 목숨까지 담보한 게임이기에 처절하다. 선조는 아들이 14명이나 되었지만 정비 소생은 없었다. 허탈없이 서자 중에서 세자를 선택해야했다. 선조 자신 방계 혈통으로 왕위에 오른 사실이 걸려 세자 책봉을 미루었다. 그러나 선조의 나이 40세를 넘기자 대신들은 세자 책봉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올렸다. 그러던 차에 임진왜란이 터졌다. 동북행 임해군은 성격이 난폭하여 주변의 존경을 받지 못해 제왕 후보에 들지 못했다. 적자도 아니요 장자도 아닌 광해군이 대통을 이을 세자가 되었다.

명·후금과의 실리 외교정책 현재 한반도 정세에도 유용

임진란 때 선조와 함께 의주로 가는 길에 영변에서 민약의 사태에 대비해 조정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뒤 7개월 동안 강원·함경도 등지에서 의병 모집 등 분조 활동을 하다가 돌아와 행재소(임금)이 멀리 거동하여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에 합류했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왕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1606년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 김씨에게서 영창대군이 태어났다. 그의 탄생은 피바람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광해군이 서자이며 둘째아들이라는 이유로 영창대군을 후사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소북파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사이에 분쟁이 확대되었다. 1613년 조령에서 잡힌 강도 박응서 등이 인목왕후의 아버지 김제남과 역모를 꾀하려 했다는 허위 진술에 따라 김제남을 사사했다. 또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하여 강화에 위태로워지다가 이듬해 강화부사 정항에 의해 증살되었다. 이 때 영창대군의 나이 아홉 살이었다. 1615년 대북파의 무고로 능창군(인조의 친동생) 추대 사건에 연루된 신경희 등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1618년 이이첨 등의 폐모론에 따라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두 가지다. 광해군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사대를 거부한 것과,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 인목대비를 유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의 외교전략은 오늘날에도 한반도 정세에 참고가 된다. 작은 나라 한반도는 여우, 쥐와 같은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만주에서 여진족의 세력이 강성해져 후금을 건국하자 광해군은 그에 대비하여 대표를 주조하고 평양 감사 박연, 만포원사 정충신을 임명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이 때 후금과 전투를 벌이던 명나라에서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다. 왕은 강홍립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출병케 했다. 그러나 부차싸움에서 명나라가 후금에게 패하자 강홍립은 적당히 싸우는 체하다가 후금에 투항해 누르하치와 화의를 맺도록 하는 능란한 외교 솜씨를 보였다. 명나라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체하고, 후금에 대해서는 명의 강요에 의해서 출병했을 뿐 우호를 다질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강홍립은 후금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후금의 동향을 보고하는 밀서를 수시로 보냈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는 오늘날에도 참고가 된다. 그러나 명분론자들은 대명 사대주의를 고수했다. 그들은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고 후금(청)은 일어선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들은 결국 병자호란을 맞고 삼전도



광해군 묘-조선 15대 임금이자 두 번째 폐위 임금인 광해군(1575-1641)과 문성군부인(1598-1623) 유씨의 묘이다. 사적 제363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릉리 산 59. 면적 5만6100㎡(17000여 평). 찾아가는 길-단종비 정순왕후의 사릉과 가깝기 때문에 함께 답사하는 것이 좋다. 경춘국도 금곡-사릉리 방향 390번 도로(좌회전)-우측에 사릉 이정표(사릉 답사하고)-사릉 우측에 짧은 다리(송릉교) 건너 송릉리로 진입-영락교 회 묘지 방향-영락동산 돌기둥 이정표 안으로-약 2.5km 오르면 광해군묘 표시 이정표가 있음.

반도 정세에 참고가 된다. 작은 나라 한반도는 여우, 쥐와 같은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만주에서 여진족의 세력이 강성해져 후금을 건국하자 광해군은 그에 대비하여 대표를 주조하고 평양 감사 박연, 만포원사 정충신을 임명하여 국방을 강화했다. 이 때 후금과 전투를 벌이던 명나라에서 조선에 원병을 요청했다. 왕은 강홍립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출병케 했다. 그러나 부차싸움에서 명나라가 후금에게 패하자 강홍립은 적당히 싸우는 체하다가 후금에 투항해 누르하치와 화의를 맺도록 하는 능란한 외교 솜씨를 보였다. 명나라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체하고, 후금에 대해서는 명의 강요에 의해서 출병했을 뿐 우호를 다질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강홍립은 후금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후금의 동향을 보고하는 밀서를 수시로 보냈다. 광해군의 실리 외교는 오늘날에도 참고가 된다. 그러나 명분론자들은 대명 사대주의를 고수했다. 그들은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고 후금(청)은 일어선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들은 결국 병자호란을 맞고 삼전도

는날에서 왕(인조)이 청태종에게 무릎 꿇고, 세 번 절하고 머리를 땅바닥에 아홉 번 짚으면서 용서를 빌며 군신관계를 맺어야했다. 이른바 삼배구두례(三拜九獻頭禮)다. 한편, 광해군은 병화로 소실된 서적의 간행에도 노력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용비어천가> <동국신속삼강행실>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조보감> <선조실록>을 편찬했으며, 적상산성에 사고를 설치했다. 허균의 <홍길동전>, 허준의 <동의보감> 등의 저술도 이 때 나왔다. 외래 문물로는 담배가 1616년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와 크게 보급되었다. 광해군은 세자로 있을 무렵부터 폐위될 때까지 성실하고 과단성 있게 정사를 처리했지만,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대북파의 장막에 의해 판단이 흐려졌다. 또한 인재 기용에도 파당성이 두드러져 반대파의 질서와 보복심을 자극했다. 뒷날 인조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략과 명분에 의해 패륜적인 군주로 규정되었지만, 실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같은 반정에 의해 희생된 연산군과는 평가를 달리 해야 한다. 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은 18년간 유배생활을 했다. 폐위 후 광해군과 폐비 유씨, 폐세자 질과

사대주의 거부 등 명분 삼은 인조반정 일어나 폐위·유배

폐세자빈 박씨 등 4명이 강화도에 위태로워졌다. 두 달 후 폐세자는 사약을 받고 세자빈은 자살했다. 폐비 유씨도 유배생활 1년7개월 만에 화병으로 죽었다. 홀로 남은 광해군은 제주도로 유배지가 옮겨졌다. 청나라에 완전 굴복한 인조가 광해군의 복위 움직임이 있을까 두려워 내린 조치다. 유배지에서 그의 삶은 초연했다. 자신을 감시하는 별장이 안방을 차지하고 자신은 아랫방에 거처케 해도 분노하지 않았다. 심부름하는 종마저 '영감'이라고 호칭해도 묵묵히 감수했다. 버리기, 비웃기를 실천한 여생이었다. 그는 1641년, 귀양생활 18년 만에 생을 마감했다. 죽기 전에 그는 자신을 어머니 공빈 김씨의 묘 바치에 묻어달라고 했다. 조정은 유언에 따라 남양주에 있는 공빈 김씨 묘 아래쪽에 묻었다. 박씨 집안으로 출가한 서녀의 자손들로 하여금 무덤을 돌보게 했다. 지금은 사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돌보는 공익요원 한 명 없는 외로운 묘이다. 광해군 때의 불교 역사는 미미하다. 선조 때 융성을 떨친 고승과 의승군의 활약이 지속되지 못해 다시 배불사상이 기세를 드려야 하는 과도기였다. 왕이 봉당에 휘둘리지 않고 불심을 깊게 하여 민심을 얻었다면 지금까지 군왕의 예우를 받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본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ang@har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제

새해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십시오.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장 이영숙(법명: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휴대폰: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새해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십시오.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장 이영숙(법명:無生子)
사무실: 02)2677-5442
휴대폰: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성지순례 기도포랑 포항. 흥해. 칠포. 대원사

웅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0미터, 길이 1080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려서움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입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천,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